

CGN TV

M A G A Z I N E / Spring 2015 _ Vol. 8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59길 8 CGN TV T. 02)796-9800 F. 02)749-6638 www.cgntv.net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Glocal!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초심

“한 영혼을 위한 CGNTV”

“CGNTV는 한 영혼, 아마존과 같은 오지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외롭게 바라보면서 부르심을 받고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를 만한 겁니다.

CGNTV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야 합니다.

아무리 땅 끝이 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마존 강이든 사하라 사막이든 고비 사막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더불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 CGNTV 초대 이사장 하용조 목사 말씀 중에서



포토에세이 _ 사진작가 신미식

더 멀리

개국 10주년 특집

- 04 CGNTV의 시작
- 06 방송 선교 발자취
- 08 방송 10년 발자취
- 10 CGNTV 방송 / 후원 인포그래픽

개국 10주년 특집 프로그램

- 12 블랙마운틴 -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 14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 다문화 선교, 이제는 역(逆)파송이다
- 15 지구촌 반상회
- 16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 17 KNOCK!
- 18 <특집 인터뷰> 유재건 대표이사

더 가까이

- 21 CGN 인터뷰 1 _ 아나운서 박지윤
힐링을 주며 힐링을 받는 CGN 방송 스토리
- 24 CGN 인터뷰 2 _ 필리핀 임장순 선교사
CGNTV 10년 지기로...
- 26 CGN 뉴스 _ 국내, 해외
- 30 편성표
- 32 에필로그 _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늘 처음처럼
- 33 CGN 후원자 명단
- 49 후원안내

CONTENTS

Spring 2015_Vol.8



COVER STORY

개국 10주년 CGNTV.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선교지를 위한 CGNTV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Magazine CGN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5년 4월 5일(통권 제8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유재건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홍보팀 진행·편집 장 경, 정원이, 정현우, 조인애 글 조인애 사진 정현우, 엄기원, 여준원, 스파지오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전경희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의 아침.
아직도 그곳에 있는 듯, 꿈을 꾸다.
찾아가는 횡수가 많아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인연.
그 인연의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심장은 뜨거워진다.

Glocal!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CGNTV

10년의 스토리가 비전이 되다

CGNTV가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오직 선교지로, 복음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한 10년.
나무를 심는 사람들처럼 마른 땅일지라도 주님의 그늘,
복음의 숲이 번져가길 꿈 꾸 순전했던 시간.
CGNTV는 지난 10년의 스토리를 돌아보며
그 발판에서 처음 비전을 향해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맨다.



CGNTV의 시작

“2000년도 즈음인가... 한 기업인이 하용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당시 그분은 목사님 앞에 십 억대의 현금을 내놓았죠. 목사님은 그때 금액이 워낙 커서 한참 고심을 하셨는데, 결국 그분께 IT로 버신 돈이시니 그 분야를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때 CGNTV 전신인 ‘온누리 인터넷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다른 분이 찾아와 또 5억을 현금하셨지요.”

CGNTV 초대 대표 손한기 장로가 몇몇 CGNTV 운영위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CGNTV 태동기를 추억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그는 이 일화를 두고 엘리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던 까마귀를 떠올렸다. CGNTV를 있게 한 하나님의 예비된 ‘손길’이었다는 말이다. ‘2천 명의 선교사, 1만 명의 사역자 파송’의 비전을 선포하고 누차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한 고(故) 하용조 목사와 ‘ACTS 29’를 머리에 새긴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2005년 3월, CGNTV는 ‘선교교육전문방송’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온 세상을 위한 방송, 세상을 섬기는 방송’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선교지 안테나 달아주기 운동 ‘드림온’ 캠페인을 시행했고, 지구촌 5대양 6대주 곳곳, 등불을 밝혀가듯 CGN위성안테나를 달아 나갔다. 100% 후원으로 진행됐다.

예배, 세미나, 말씀강해, 대담 프로그램들을 비롯해 <선교사님 힘내세요> <미키클럽> <박나림의 하늘빛 향기> 등 선교지의 고충을 함께하며 웃음과 눈물을 나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이 방송됐다. 이를 위해 여러 유명 방송인들도 시간과 재능을 아끼지 않고 진심으로 동참했다.

사역을 위한 네트워크도 확대됐다. 이는 국내를 시작으로 2005년 8월 미주, 2006년 10월 일본, 2008년 6월 중문, 2010년 11월 태국, 2012년 3월 아랍, 2014년 9월 인도네시아까지 CGNTV 지사 또는 제작센터가 설립돼 선교지를 중심으로 방송선교 사역이 확장됐다.



지사 및 제작센터로 방송 선교 확대 신학교육, 현지 교회 네트워크 구축 집회 및 콘퍼런스 확대



방송 선교 발자취

1 미주 CGNTV(2005년 8월)는 자체 후원회를 결성했고, 과테말라 비전신학교와 연계해 2년제 신학과정을 방송했다. 현재 1500명의 재학생과 9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LA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공중파 채널로 송출하며 미주 한인 사회에 중요한 매체로 발돋움했다. 사역자가 부족한 미국 내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 설교 DVD도 제작, 배포하고 있다.

2 일본 CGNTV(2006년 10월)는 일본 전국 47개 현, 1500개 교회, 1600여 명의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100여 명의 지역 통신원들이 자체적으로 지역교계와 행사소식을 전하고 있다. 목회자가 없는 전국 1000여 개 무목교회에 CGNTV 안테나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주일 오전, 오후 시간대 별로 예배를 편성해 방송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창조과학, 어린이, 이스라엘 회복 사역 등을 위해 각종 세미나, 집회, 프로그램들도 마련하고 있다. NGO인 '아가페 CGN'을 설립해 일본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도 전하고 있다.



3 중문 CGNTV(2008년 6월)는 대만 교계와 협력해 제작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성광신학교를 중심으로 목회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홍콩 '창세TV', 대만 '신연광TV'와 상호 콘텐츠도 교류 중이다. 대만 80여 교회 목회자를 통해 중문대에 말씀 및 각종 세미나를 제작 방송하고 있다. 가정 붕괴가 심각한 대만 땅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제작했다.

4 태국CGNTV(2010년 11월)는 큐티를 보급하기 위해 격월로 태국 내 주요도시를 돌며 큐티 책, 방송 등을 소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를 위한 재정은 현지 교회 연합회에서 부담하는 중. 매월 태국 내 각 쟁앗(도)을 돌며 <10분 메시지>를 제작하고 있다. 양질의 영적 세미나를 DVD로 제작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골교회에 보급하고 있다.

5 아랍CGNTV(2012년 3월)는 이슬람권 선교방안으로 대두되는 '미디어 선교'를 위해 매년 '미디어 미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중보를 위해 '블레싱 아랍집회'를 열고 있다. 다큐멘터리, 뉴스를 통해 이슬람,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고 아프리카 유럽 선교를 위한 파트너 구축에 힘쓰고 있다.

6 인도네시아CGNTV(2014년 9월)는 지난 해 4월 인도비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도비전을 통해 지난 9월부터 개국과 함께 CGNTV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향후 인도비전은 물론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내 12개 주요 도시 네트워크 형성 및 차세대 인력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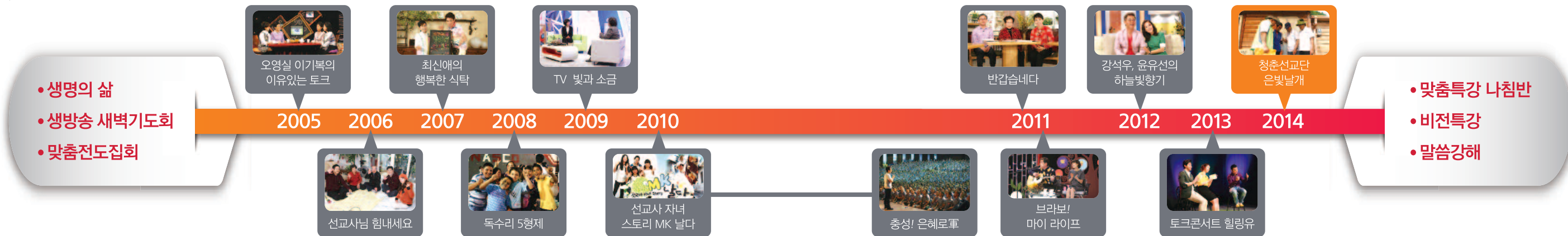
지구촌 선교지와 울고 웃고 CGNTV 방송 10년 발자취

CGNTV는 2005년 3월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 텔레비전)' 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구촌 5대양 6대주에 24시간 365일 영적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선교지 곳곳을 향한 방송인만큼 방송된 프로그램들은 지구촌 곳곳을 돌고 돈 발자취였다. <예루살렘 평화대행진>(2005), <은혜의 강 아마존>(2013) 등 대륙별 풍경을 담은 다큐 프로그램들은 지구촌 선교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됐고 예배, 말씀, 큐티, 문화, 세미나, 특강 등 수많은 제작 프로그램들은 숨은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난 10년 세월 동안 지구촌 선교지에 눈물과 미소로 번져갔다. 또한 지구촌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선교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주요 방송 프로그램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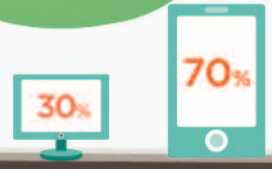
연도별 주요 프로그램



오늘도 **하나님의 꿈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조회수
22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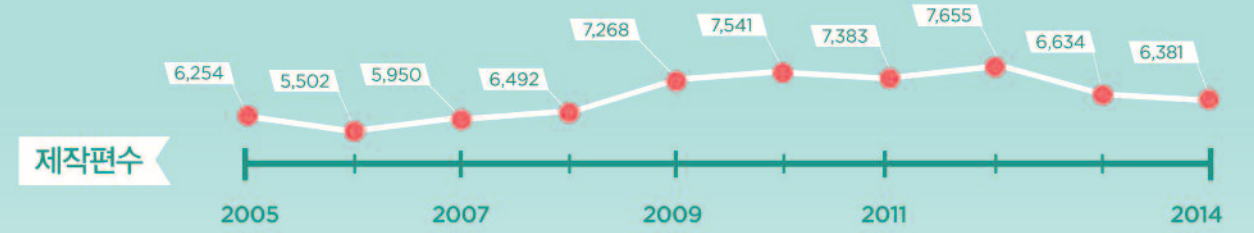


CGNTV 시청방법



지난 10년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CGNTV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정기후원자 **23,5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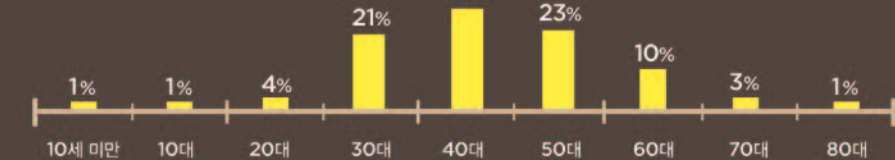
드림온 캠페인 안테나 설치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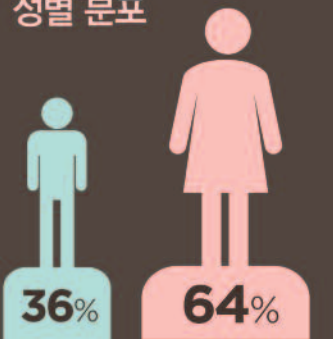
지속적인 정기후원 증가



연령별 후원자 분포



후원자 성별 분포



개국 10주년 특집 기획 프로그램

CGNTV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집 기획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각 프로그램들은 선교방송으로서 걸어온 CGNTV의 10년 역사를 토대로 다시 한 번 폭넓은 선교패러다임을 재조명한다. 또한 2015년 CGNTV의 사역 핵심 4대 가치인 '선교, 통일한국, 차세대, 사회선교(하나님의 정의)'를 화두로 던지며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도전을 전하고 있다.

- 1 **내한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 2 **CGNTV 핵심 4대 가치 조명 <개국 10주년 특별기획>(총 4편)**
- 3 **다문화 선교프로젝트 <지구촌 반상화>**
- 4 **전도, 그 다음은?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 5 **복음을 담은 짧은 영상 메시지 <KNOCK!>(총 24편)**

내한 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다큐멘터리 / 50분 내외 / 2015. 4. 5 (부활주일) 오후 8시 30분)



올해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지 130주년이 되는 해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 제물포에 입항한 그들은 오직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낯선 땅에 학교와 병원 등을 세우며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의 불모지를 기경했다. 그들의 첫 발은 100여 년 역사를 지나며 대한민국을 선교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로 바꾸어 놓는 결실을 이뤘다. 이에 따라 CGNTV는 개국 10주년에 발맞춰, 내한 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를 제작, 진정한 선교의 의미를 되짚어봤다.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은 해방 무렵부터 90년대 초, 한국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한국에서 젊음을 바쳤던 미국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다. '블랙마운틴'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당시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 CGNTV는 베티 린튼, 존 윌슨, 스탠 토플, 미아 토플 선교사 부부 등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당시 내한 선교사들을 찾아가 한국 선교의 불씨가 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들은 당시 한국에 학교와 병원 등을 지으며 가난한 영혼들과 함께 했고 복음을 전했다. 또한 그 사랑은 지금까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린튼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CFK(Christian Friends of Korea-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라는 단체가 설립돼 북한을 돕고 있는 것. 그들은 깨끗한 물과 의약품, 음식 등을 공급하고, 온실과 트랙터를 제공해 식량 생산을 돕기도 한다. 또한 북한 사람들이 결핵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스탠포드 대학교 및 여타의 단체들과 협력해 고급 수준의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역에는 은퇴 선교사들도 여전히 함께 하고 있고 린튼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 후손들이 동참하고 있다.

CGNTV는 <블랙마운틴>을 시작으로 향후 이들 이외에도 한국 복음화에 불씨가 된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찾아 생명의 씨가 뿌려진 귀한 시간들을 되짚어 갈 계획이다. <블랙마운틴>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처음 이 땅을 밟았던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 다큐멘터리 주요인물



제임스 린튼과 그의 어머니 베티 린튼
휴 린튼, 베티 린튼 부부는 순천 복음화에 힘썼고 결핵퇴치 운동에 큰 공헌을 남겼다. 아들, 며느리들이 현재 CFK(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을 설립해 북한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다.

스탠 토플 선교사
여수 애양원에서 21년간 원장으로 섬겼고 정형외과 의사로 한센인 치료에 앞장섰다. 그의 둘째 딸 시슬 토플이 의사가 되어 현재 북한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존 윌슨
아버지 R.M 윌슨 선교사는 애양원 설립자이며 존 역시 소아과 의사로 전주 예수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 전도에 힘썼다. 은퇴 후 북한을 돕고 있다.



미국 남 장로교 선교사들



블랙마운틴에 거주하는 은퇴 선교사와 후손들

CGNTV 4대 핵심가치 조명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 50분 / 총4회)

다큐멘터리 <개국10주년 특별 기획>은 2015년 CGNTV 사역 핵심 4대 가치인 '선교, 통일한국, 차세대, 사회선교(하나님의 정의)' 를 집중 조명한다. 각 항목이 실현되고 있는 선교현장들을 찾아가 국내외 선교를 위한 다양한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제1편 <다문화 선교, 이제는 역(逆)파송이다(사회선교)>

- 2015. 3. 29 오전 10시 30분 방송



매년 국제결혼 증가율이 10%씩 늘고 있고, 등록된 이주외국인 160만 명 이상, 2020년에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즉 전체 인구의 20%가 외국인이 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교회 및 사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다문화 선교, 이제는 역(逆)파송이다>는 다양한 이주민 선교 현장 및 정책, 다문화 선교의 성공 케이스, 현지인을 전문인 선교사로 양성해 선교지로 역파송하는 현장 등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또한 역파송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모습들과 그들이

적응,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사례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 위 프로그램은 CGNTV홈페이지(www.cgntv.net)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편 <교회가 주도하는 통일(통일한국)>(가제)

2015년 남북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고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 있는 새터민(탈북자)을 통일선교사로 양육하는 현장을 소개한다.

제3편 <부흥의 시작, 그 현장을 가다(차세대)>(가제)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오는 등 이 땅 청소년들의 격렬한 성장통은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스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아이들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믿음의 차세대를 양육하는 특별한 공동체들을 만나본다.

제4편 <다시 쓰는 사도행전>(가제)

세계 복음화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위해 달려 온 온누리교회의 30년간 선교 발자취와 그 열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온누리 선교사들을 만나본다.

* 제2, 3, 4편은 연내 순차적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방송일 미정)

다문화 선교프로젝트 지구촌 반상회

(방송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이 땅에서 어렵게 일하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주민들... 지금이 바로 그들을 선교할 때입니다."
- 정명현 소장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당신이 땅 끝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 유해근 목사 (나섬공동체)



지구촌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CGNTV 다문화 선교프로젝트 <지구촌 반상회>는 다문화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며 외국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꾀하고, 이주민, 다문화 가정들에게는 한국 적응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또한 그들을 통한 '역파송 선교'의 길도 모색해 본다.

<지구촌 반상회>는 박지윤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전도사,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 패널들과 함께 한다. 매주 다문화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문을 열어, 성경에 나오는 다문화 이야기, 다문화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법 등을 알아보고, O.X 퀴즈나 시청자 질문 코너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나눈다. 또한 다락방 코너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디저트를 맛보며 음식을 통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들도 알아본다.

• 주요 출연자



- 진행 아나운서 박지윤
- 패널 왼쪽부터
외국인 전도사 판카즈 카필라(인도)
이주여성 오강토야(몽골)
선교사 문창선(위디션 선교회)
유학생 데렉 스텔마(미국)

* 본 프로그램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다문화 이해 및 선교를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도, 그 다음은?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방송시간 : 목요일 오후 10시 50분)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요, 또 걸어가야 할 길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개인으로, 그리고 온전한 교회로 부르셨다.” - 고(故)옥한흠 목사



※ <청년제자프로젝트RUN>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현장과 제자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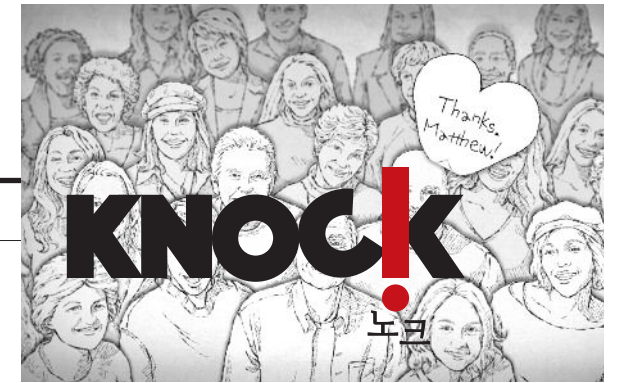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groups/jundoRUN>
블로그 : http://cgntv_run2.blog.me

<청년제자프로젝트 RUN>은 2014년 시작된 <청년전도프로젝트 RUN>의 '시즌2'다.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란 물음으로 시작됐던 <청년전도프로젝트 RUN>은 실제적인 전도 현장과 멘토들의 조언에 힘입어 청년들 사이에 다양한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SNS,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청년전도에 갈급했던 한국교회와 전도자들이 프로그램을 교재삼아 공부하고 토의하는 새로운 '에듀테인먼트' 현상도 생겼다.

이에 따라 CGNTV는 '전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시즌2' <청년제자프로젝트 RUN>을 제작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제자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제작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프로그램은 '제자화'는 선택된 누군가, 특정한 훈련을 이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의 신청을 받아 그들이 있는 교회나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선보인다.

복음을 담은 짧고 강렬한 영상 메시지 KNOCK(노크)!

(총24편 / 3분 내외 / 방송일시 미정)



온라인 및 모바일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현대인들은 긴 영상보다 주로 짧고 강렬한 영상에 반응하고 있다. CGNTV는 시류에 발맞춰 짧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기독교인은 물론 비 기독교인들의 마음도 '노크' 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 <KNOCK>를 제작한다. 총 24편으로 기획된 <KNOCK>는 한국형 짧은 영상으로, '드라마(단편영화)', '뮤직비디오', '모션그래픽', '인터뷰 & 이미지', '기타 장르' 형태의 3분 내외 영상이다.

창작 시나리오를 통한 단편영화, 간증 재연, CCM 뮤직비디오, 플래시몹이나 버스킹 실황, 복음 메시지, 감동적인 사연 등을 담을 예정이며, 한국교회 및 기독교 단체의 예배를 돕는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나리오 공모 및 시청자 참여를 통한 공동제작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며, 향후 'CGNTV홈페이지'를 비롯해 'Youtube', '카카오톡', 'Facebook', 'vimeo', 'yesHEis' 등 온라인과 모바일 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모놀로그’가 아닌 ‘다이얼로그’ 방송 시청자 중심으로

CGNTV 3대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개국 10주년을 맞은 2015년, CGNTV의 재도약을 준비하며 ‘섬기는 자들’ 과 ‘시청자’ 에 가장 비중을 두었다. 일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자사 직원들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고 CGNTV 대표로서 혹은 직원들의 아버지같은 마음으로 향후 사역의 청사진들을 그리고 있었다.

유재건 대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의 제안으로 2012년 12월, CGNTV 3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포들의 인권을 위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1990년 귀국해 15, 16, 17대 국회의원, 영풍 대표이사, 경원대학교 학장과 교수, 공중파 TV토론 진행자 등을 역임하며 사회적 신망을 쌓아온 인물이다. 취임 당시까지 직원 300명이 넘는 법률 회사의 상임 고문을 지내던 중, 80세를 눈앞에 둔 시점에 CGNTV로 부르심을 받았다.

취임 시 CGNTV에서 그에게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무엇보다 오랜 경륜과 인적 인프라를 통해 대내외적인 지지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취임 후 그가 가장 눈이 갔던 곳은 회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모든 사역은 사람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일에 무엇보다 마음이 갔다. 이를 위해 비서, 기사를 두고 일했던 법률회사 고문직도 내려놨다.

“무엇이든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CGNTV 사역도 이곳 140여 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그들의 처우와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있습니다. 돈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협력하며 믿음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주년을 기념해 향후 격년으로 10년 근속한 직원들의 노고도 치하할 생각입니다.”



CGNTV 직원 수련회



CGNTV 정기 후원 행사

그래서 그는 더불어 100% 후원으로 운영되는 CGNTV 사역의 재정 마련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현재 2만3천여 명인 정기 후원자들을 올해 5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와 CGNTV 운영위원회가 그리는 중점 목표다. 지난 해 동안교회(김형준 목사)를 방문해 사역을 소개한 후 270여 명의 정기 후원자들이 확대됐는데, 이후에도 다양한 방면을 통해 이 같은 접근을 이어갈 예정이다.

“CGNTV는 현재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파송선교사가 2만 6000여 명인데, 교단 교파를 뛰어넘어 86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방송을 보고 있어요. CGNTV가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보듬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LA 지상파 18.4를 틀면 바로 CGNTV가 나와 많은 동포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귀한 씨를 뿌리는 작업에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국내 많은 교회들에게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다가갈 것입니다.”

사역의 가치와 함께 자사 콘텐츠에도 자부심이 큰 그는 “CGNTV가 HD 방송을 실행하며 화질이 좋아졌고 프로그램도 여타의 기독교TV에 영향을 주며 앞서가고 있다”며 2015년 제작될 프로그램들과 사역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 CGNTV는 ‘선교, 통일한국, 차세대, 사회선교(하나님의 정의)’ 라는 핵심 4대 가치를 세워 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Back to the basic(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라’ 가 그 베이스입니다. 올 한 해 더욱 이에 집중할 것입니다. 최근엔 해방 무렵부터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돌아간 선교사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 블랙마운틴을 직접 찾아갔죠. 4월 5일 부활주일에 선보이는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줄 것입니다.

또한 10주년을 기점으로 좀 더 시청자 중심의 방송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방송은 ‘모놀로그(독백)’가 아니라 ‘다이얼로그(대화)’, 즉 ‘쌍방향대화’ 입니다. 10년 정도 하면 방송이 제작자 중심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모니터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을 비롯해 그들의 전문적인 비평도 적극 반영해 시청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유 대표는 CGNTV를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오랜 세월 금배지를 달았던 옷가에 이제 늘 CGNTV 배지를 달고 다니고 있다. 그는 인터뷰 말미, “CGNTV가 아직은 국내에선 케이블마다 채널이 달라 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세심한 양해를 구했다. 이어 “점차 발전돼가는 모습을 함께 기도하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국 10주년을 맞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후원해 준 이들에게 전 직원을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사랑

“CGNTV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환한 달처럼 성장했어요.
그 진실한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듯합니다.
CGNTV는 영혼의 텔레비전입니다.”

이어령 님 한중일 비교문학 연구소 이사장

“어머니는 선교사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CGNTV에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이 생겼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찍으셨죠.
어머니 인생의 1번이 ‘행복한 식탁’ 촬영이었습니다.”

심건희 님 요리연구가 고(故) 최신애 권사 차남

“말씀 속에서 강요하지 않는 부드러움, 온유함을 느낍니다.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을 느낍니다.”

김봉비 님 후원자

“영상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폴 발로쉬 예배인도자



힐링을 주며 힐링을 받는
CGN 방송 스토리



만남

건강한 에너지와 솔직한 입담을 뽐내는 박지윤 아나운서가 2009년부터 CGNTV 프로그램들에 그녀 특유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진행에 있어서는 이미 베테랑인 그녀가 첫 인연이 닿은 이후로, 어느 덧 CGNTV 사역의 한 지체를 맡고 있는 것이다. 그녀도 이 일에 대해 ‘방송’이란 말 대신 ‘섬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녀가 CGNTV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9년 TV <빛과 소금>을 진행하면서 부터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당시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아쉽게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지만, 2012년 <클래식 갤러리>를 통해 다시 CGNTV 시청자들과 만났다.

<클래식 갤러리>는 지휘자 서희태, 모델 박돌선과 함께 역사 속 위대한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남다른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오로지 위대한 작품만 기억하지만, 그것이 나오기까지 그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면서 그 힘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음악에 더욱 감동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 하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고, 또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KBS를 떠나 프리랜서로 일한지 8년이 되가는 그녀는 여러 방송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지만 늘 우선시 두는 것은 프로그램의 특성과 타깃이 되는 시청자다. 그간 진행했던 CGNTV 프로그램들만 해도 그랬다. <클래식 갤러리> 이후 지난해 맡았던 토크 콘서트 <힐링유>, 2015년 봄 새롭게 선보인 다문화 선교를 다루는 <지구촌 반상회>도 모두 프로그램 포맷이나 주제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모두 타깃 시청자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그녀는 CGNTV 방송이 자신에게 ‘힐링’이자 신앙에 ‘도전’을 준다고 고백했다.

은혜

‘섬김’이 수고와 함께 남모를 기쁨을 주듯, 그녀도 CGNTV를 섬기는 동안 도리어 영적 에너지를 충전 받으며 부지중에 CGNTV와 정이 들어갔다.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두 아이가 생기는 특별한 경험도 있었고, CGNTV 사역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또한 전문 방송인으로서 함께 하는 지체들에게 식구 같은 바람도 전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 해 11월 <CGNTV 후원을 위한 드림은 콘서트> 진행을 맡았다. CGNTV가 온전히 후원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 많은 나눔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선교현장과 선교사, 시청자들의 고백을 지켜보며 도리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

“CGNTV의 목적이 그저 복음을 전 세계 많은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드림은 콘서트’를 진행하며 이 방송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들 역시 거친 삶 앞에 나아할 수 있는 존재구나 싶어지면서, 작은 마음을 보태 그분들을 위로하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도 선교사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방송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그녀는 “CGNTV가 좋은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섬김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안주하지 않고 늘 꿈꾸는 CGNTV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망

그녀는 CGNTV <지구촌 반상회>를 통해 다시 한번 지구촌 시청자들을 만났다. 이미 몇 회분의 녹화를 마친 그녀에게 다문화 선교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일까?

“저도 그간 다소 다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언론에서도 다문화의 부작용이 많이 부각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말씀에서는 끊임없이 다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방족속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했고 이웃으로 섬겼죠. 그래서 지금의 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겠어요. 언젠가는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에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될 잠재적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수많은 다문화 이웃들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전문 방송인이자 아내,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분 단위로 움직이는 자신의 삶이 도리어 에너지 넘치고 즐겁다. 또한 그 원천이 “늘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방송이 늘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그녀는 올 한해에는 멈춤과 쉼 그 안의 묵상을 소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아이들과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가정과 개인적인 비전사이에서 균형감을 잘 유지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더불어 개국 10주년을 맞은 CGNTV에 대해서도 지난 십년간 섬겨 온 이들에게 감사한다며, CGNTV가 좀 더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자신도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CGNTV 10년 지기로...

2005년 3월, CGNTV 초대 이사장 하용조 목사 이하 많은 동역자들은 선교사들을 위한 위성방송을 시작하며 가슴이 뜨거웠다. 선교의 열매를 위해, 복음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영적 갈급함, 외로움에도 주목했다. 그 진심은 지구촌 오지 곳곳 감동으로 꽃피워져 나갔다. CGNTV의 10년 역사는 그들의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일군 길이다. 또한 CGNTV가 지금 지구촌 선교사들의 친구가 되고 있는 이유다. 10주년을 기념해 만난 필리핀 임장순 선교사는 그 시간을 보여주는 산증인이다.



“CGNTV는 내게, 애정 그리고 추억”

“CGNTV에 대한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애정” 10여 년간 필리핀에서 사역 중인 임장순 선교사의 한마디다. 필리핀에서 터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던 사역 초창기, 임 선교사는 서로에게 예비된 동반자처럼 CGNTV와 만났다. 원했던 프로그램들이 24시간 무료로 나온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CGNTV에서 설치에 앞서 안테나를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왔어요. 해외로 안테나를 보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그와 한 동료 선교사는 안테나 구입처를 열심히 알아봤고, 결국 구입처를 찾아내 CGNTV를 10여 군데 선교사 가정에 더 설치해 줄 수 있게 됐다. CGNTV와 선교사가 협력해 소중한 후원금으로 생명의 씨를 뿌린 귀한 출발이었다.

당시 부서별로 요직을 맡고 있던 CGNTV 직원 예닐곱 명은 필리핀으로 날아가 임 선교사와 함께 그 10여 개의 안테나를 직접 설치했다. 선교지 현황을 몸소 체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들은 임 선교사와 함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니며 안테나를 설치하고 식사도 하고 밤 깊도록 이야기도 나눴다. 오지 선교사들을 찾아갈 때는 길이 험해 자동차가 펑크 나 고생도 했지만, 한국어로 된 방송을 처음 만난 오지 선교사들이 설치 후 눈물까지 흘릴 때면, 그 정도 고생은 도리어 추억이 됐다. 그때 CGNTV와 임 선교사의 행보는 지금까지 10년 째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CGNTV 전 직원 아웃리치’의 모체가 됐다. 임 선교사는 “지금도 CGNTV 영상에서 타 선교지 선교사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 그때의 모습이 떠올라 뭉클하다”고 말했다.

이 일을 계기로 임 선교사는 안테나 설치를 자세히 배워 CGNTV를 대신해 동료 선교사들에게 직접 안테나를 설치해주었다. 삼만 칠천 개인 필리핀 곳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4년 간 CGNTV 통신원으로 생생한 필리핀 선교 소식도 전해 주었다.



사역하면서 외로울 때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를 받고,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했던 기억들이 추억이 돼 그에게 CGNTV는 ‘애정’으로 표현되는 곳이 됐다.

“첫 뜻 번치 않기를...”

“CGNTV 안테나는 후원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안테나 값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관심이 없을 때도 많은데,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면서 우리가 당신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도 익히 여러 선교지에서도 피드백을 보내 왔듯이 CGNTV가 선교지의 외로운 사모들,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귀한 친구, 양식이 된다고 덧붙였다.

“음식, 생활양식 모두 선교지가 한국보다 도리어 잘 맞았다”면서 선교지에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그는 ‘선교사 자녀를 돕는 게 꿈’인 자신의 자녀들 이야기, 선

교지에 오게 된 이야기까지 1시간 남짓 편안하게 전해 주었다.

“개국 10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어디든 선교사를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라며 ‘선교사들을 위해서 방송해야 합니다’라고 외치셨던 것이 아직도 가슴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뜻에 따라 쫓 전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국 10주년을 맞은 CGNTV를 응원하며 수술차 들렀던 고국을 떠나 다시 제 2의 고향인 선교지로 향했다.

임 선교사가 전한 필리핀을 위한 기도제목

1.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많은 땅에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2. 총기 소지자나 소매치기가 많은데, 위험에 노출된 많은 한인들이 안전할 수 있기를.



개국 10주년 감사, 선교헌신자에배로

CGNTV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27일(금)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선교헌신예배를 드렸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해로 세 번째 선발된 CGNTV직원 선교 헌신자들을 세운 자리.

예배는 CGNTV 전 직원을 비롯해 CGNTV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중보기도단, 선교계 주요 인사 등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의 메시지, 헌신자들의 간증, 그들을 위한 축하와 격려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선발된 CGNTV 선교헌신자들은 김소진(미디어국, 대만), 민정환(제작국, 인도네시아), 양용모(편성국, 이집트), 오성환(후원기획실, 중남미), 총 4명.

올해 초 소속 부서 리더십들의 추천을 받아 서류를 접수한 이들은 인성, 심리 검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향후 최대 2년간 언어 및 영성 훈련 등의 교육을 받고 CGNTV 해외 지사 또는 제작센터에서 근무하며 선교사역에 헌신할 예정이다.



KWMF 제7차 지도력개발회의 참석

CGNTV는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제7차 지도력개발회의'에 참석, 미디어선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선교사들에게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박은조(은혜샘물교회), 김승욱(할렐루야교회), 한기홍(은혜한인교회) 목사 등 한국, 미주 한인교회 지도자들과 김중국(KWMF 대표회장) 선교사 등 34개국에서 온 10년 차 이상 25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했다.

발제자로 나선 CGNTV 함태경 경영기획본부장은 복음을 시대 변화 및 각 나라 상황에 맞게 전할 수 있는 미디어의 활용 방법과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CGNTV 인도네시아 지사의 운영준 국장과 신정길 사원은 회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회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담으며 선교사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날 32명의 선교사들이 CGNTV 위성안테나 설치를 요청했다.



개국 10주년, 기자간담회

CGNTV는 개국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3월 11일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역 계획을 밝혔다. '선교, 통일한국, 차세대, 사회선교(하나님의 정의)'를 4대 핵심가치로 내걸고 글로벌 선교방송으로 재도약을 꿈꾸는 CGNTV는 이를 위해 2015년 선보이는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등을 PD들을 통해 직접 소개했다.

다문화 선교를 집중 조명할 토크쇼 <지구촌 반상화>(진행 박지윤), 청년 전도 운동에 일조한 시즌1에 이어 미디어판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그리고 4대 핵심 가치를 밀도 있게 다룬 <개국 10주년 특별 기획> 등.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방송중이다.

또한 CGNTV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신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GNTV 하모니'의 출시도 알렸다. '하모니' 앱은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성경 구절, 중보기도문, 명언 등의 메시지가 뜨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돼 있다.



CGNTV 3기 모니터단 출범

CGNTV 3기 시청자 모니터단이 위촉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CGNTV 본사 비전홀에서 발대식을 갖고 향후 CGNTV의 영적, 질적 성장을 위한 눈과 귀가 될 것을 결의했다.

세대를 망라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해왔던 이들은 모두 방송선교에 뜻을 갖고 있던 CGNTV 시청자들로 전원 자원했다. 권순옥(온누리교회, 63세) 씨는 "타 방송 시청자위원회를 하면서 그동안 TV 매체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CGNTV를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지혜(동안교회, 29세) 씨는 "늘 방송선교에 뜻이 있었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그 비전을 펼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총괄본부장 김경훈 목사는 이날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니터단이 CGN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위촉된 모니터단은 앞으로 2015년 상반기 동안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매주 2차례에 걸쳐 모니터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촬영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해외뉴스

일본 CGNTV _ 건강한 교회 세우기

일본CGNTV는 2015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세우기'에 주력한다. '신학을 바탕으로 한 바른 목회', '차세대의 활성화', '소외된 사회계층(장애우, 독거노인 등)'에 주목할 계획이다. 또한 재일동포 일본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교류하며 '통일한국'의 길을 도모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봄 개편 특집프로그램 <신학교 교장, 교수 초청 신학 좌담회>를 방영한다. 관동관서 주요 신학교 교장과 교수들을 초청해 목회현장을 위한 여러 소양 및 신학교 활성화 방안 등을 전한다.



한편 일본CGNTV는 올해 <러브소나타> 본부와 함께 문화전도집회 <교토 러브소나타>(4월), <오이타 러브소나타>(10월)를 준비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와는 오는 6월 일본선교 포럼을 함께 기획하고 있다. 2016년 개국 10주년을 앞두고 제작 스튜디오, 사무실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미주 CGNTV _ 유재건 장로의 부르심

CGNTV 대표 유재건 장로가 지난해 12월 미주 CGNTV <The 부르심>에 출연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유 장로는 1973년 미국에서 갇힌 살해 누명을 썼던 이철수 씨를 두 번이나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비롯해 3선 국회의원 시절 이야기, 성경 필사로 육체적 고통을 이긴 간증, 어머니에 관한 추억, CGNTV 대표를 맡고 있는 현재까지 자신을 이끈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The 부르심>은 미주시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1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다.



중문 CGNTV _ 신학교육 프로그램 집중

중문CGNTV는 '중화권선교교육' 방송으로서 신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화권 사역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지난해 MOU를 맺은 대만 성광신학교의 <박사 과정 강의 시리즈>, <목회자 훈련 세미나>, <린츠신 박사 신학 강의 시리즈 100여편> 등. 또한 가정 붕괴가 심한 대만 사회를 위해 '아이자기금회', '가나혼인복음단체' 등과 협력, 가정 바로 세우기 프로그램인 <사랑하는 우리집>(총 48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랍 CGNTV _ 4부작 다큐 <아랍의 계절>

아랍CGNTV는 올해 개국 3주년을 맞아 4부작 다큐멘터리 <아랍의 계절>을 제작하고 있다. 첫 화 <아랍의 봄 그 후, 튀니지(가제)>가 촬영을 마친 상태로, 지난 2월 4일 '두바이 미션 페스티벌'에서 상영돼 튀니지 선교를 위한 불을 지폈다. 이밖에 아랍 CGN은 3월 12일 MCC 회의, 선교 세미나, 13일 3주년 기념행사, 14일 2016년 이집트 제작센터 설립 비전 나눔, 15,16일 블레싱 아랍 <WITH 이집트> 등을 진행했다. 아랍CGN은 '이집트 제작센터 설립'과 이슬람권 오지 사역으로 고충 받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드림온'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CGNTV _ 새 프로그램 첫 제작

지난 해 9월 출범한 인도네시아CGNTV는 2015년 운영시스템 구축, 콘텐츠 공급 확대, 주요 도시 네트워크 형성, 차세대 인력 육성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새 봄을 맞아 현지와 협력해 <10분 메시지>,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특집 프로그램(미정)>, <뉴스>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계획. 2월 24-27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KWMF(한인세계선교사회) 지도력 개발회'에서 뉴스 취재 및 예배 영상 촬영 등으로 섬겼다.



태국 CGNTV _ 태국 복음화의 희망, 청소년

태국CGNTV는 지난 2월 20일 태국 복음화의 희망인 태국 청소년들을 위해 신규프로그램 <You are Special Thai>를 방송했다. 태국은 기독교 인구가 0.7%밖에 안 되는 복음의 불모지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부흥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You are Special Thai>는 그들의 꿈과 희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태국 부흥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CGN TV
편성
프로그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05: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2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지구촌 반상회 11:10 미니콘서트 섬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7:00 [말씀] 서정오 목사(동승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영어자막) 08:5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07:0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08:50 [말씀] 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 10: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반갑습니다 시즌2 통일복소리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7:4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08:50 [말씀] 유진소 목사(ANC) 10: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영어자막) 07:0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07: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0:2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00 [말씀]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08: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이재훈 목사의 비전메시지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지구촌 반상회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6:00 생명의 삶 07:0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9: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10: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1:30 미션 로드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6:50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매트 찬들러의 아담과 하와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반갑습니다 시즌2 통일복소리	12:30 [말씀]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톨리안 차비진의 완벽해지는 법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지구촌 반상회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항남교회) 13:1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4:10 반갑습니다 시즌2 통일복소리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2:3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50 지구촌 반상회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컨퍼런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희 목사(뉴욕IN2) 13: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14:50 [말씀] 홍성욱 목사(안양제일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칩 인그램의 성경적인 자녀양육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50 새벽나라 18:00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5:3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30 김현욱 교수의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이야기 17:2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23:30 일본 아마토 갈보리 채플예배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사사기> 21:0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지구촌 반상회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23: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9:3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20:10 햇볼트리니티 성경강좌 <골로새서> 21: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크레이그 그로첼의 다니엘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승교회) 20:10 김현욱 교수의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이야기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50 미션 로드 23:20 [말씀] 홍성욱 목사(안양제일교회) 23:50 데이비드 플렛의 래디컬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19:30 [말씀] 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 20:10 한국리더십학교(2) 21:0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50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23: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항남교회) 20:10 일터사명 컨퍼런스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대린 패트릭의 산상수훈 00:20 생명의 삶	18:2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영어자막) 19:00 일터사명 컨퍼런스 20:00 지구촌 반상회 20:40 [말씀] 유진소 목사(ANC) 21:20 반갑습니다 시즌2 통일복소리 22:00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22:30 미션 로드 23:0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00:20 생명의 삶

늘 처음처럼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CGNTV가 선교의 소명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CGNTV는, 1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선교에 목숨을 건 이들에게 보내주셨던 생명과 위로의 씨앗이었습니다. IT 기술이 한창 도약 발전하던 때, 당신의 성실한 종들을 부르셔서 그 씨를 심고 가꾸고 배가시켜 당신께 속한 많은 영혼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한 종들은 두려움 없이 그 사명에 순종했고, 지구촌 5대양 6대주에 24시간 365일, 발보다 빠른 영적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내 농어촌 지역 교회, 세계 각국 선교사, 해외 동포들을 향한 믿음과 확신의 꿈이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은 가치 있는 헌신들이 모여 전진했습니다. 외로운 사역의 길을 걷고 있던 선교지에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그 위로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힘이 된다는 것을 확신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 봉사로 이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그 역사는 선교를 감당하는 힘이 자원이나 인력이 아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CGNTV는 미주, 일본, 중문대, 아랍, 태국에 이어 지난 해 인도네시아까지 지구촌 곳곳에 하나 둘 지사 또는 제작센터를 설립하며 조금 더 선교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선교가 일방적 선편포가 아니듯, 현지 교회, 선교사들과 손잡고 더욱 현지에 필요한 방송을 만들며 그 때 그 때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재난 지역도 찾아가고, 선교사들의 벗이 되고, 목사가 없는 교회에는 목회자로, 신학교육이 열악한 곳에서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현재 CGNTV는 전 세계 170여 개국 5개 위성을 통해 다국어 방송이 한국, 일본, 중문, 미주 등 4개 채널로 24시간 365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케이블, IPTV, 스마트폰을 통해 약 1천만 명의 시청가구를 두고 있고, 인터넷으로 178개국에 넘는 곳에서 매일 CGN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 방송의 초석이 마련된 셈입니다.

10년 전 심은 씨앗이 배가되고 그 열매로 많은 이들이 새 힘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이 그랬듯, CGNTV는 앞으로 다가올 10년도 사명의 씨를 뿌린 처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교지를 향해 '더 멀리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간 수고한 많은 헌신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